잿더미 향일암 '예견된 人災'

소방차 진입 불가능 하고 목조건물 … 방재장비는 소화기 뿐

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 없어 피해 키워

CCTV 설치 안돼 화인 수사도 오리무중

20일 새벽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인해 '잿더미'로 변한 여수시 향일암 화재를 놓고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향일암은 산 중턱에 있어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인 데도 기본적인 방재장비조차 갖추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화마(火魔)가 삼킨 향일암의 건물 3채는 모두 독립 건물인 데다 촛불 등 발화 요인이 없었던 점, 사찰이 24시간 개방된 점 등에 비춰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원인 모를 불길, 순식간에 건물 3채 삼켜=향일암 대웅전에 불이 난 것은 20일 새벽 0시24분. 불이 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주민 등 250여명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사찰이 해발 150m가 넘는 금호산 중턱에 있는 데다 입구에서 암자까지 1㎞에 이르는 진입로도 폭이 2~3m로 좁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향일암과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가 14~40km 떨어져 있어 화재 신고를 접수받은 뒤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30분 이상이 소요됐고, 화재 당시 몰아친 초속 6~7m의 강풍도 진화작업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사찰 내에 이렇다할 방재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도 피해를 키우는 주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향일암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화기를 제외한 방재장비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화재 원인 '오리무중'…방화 가능성 수사=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불이 자정 직후 대웅전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화지점인 대웅전이 형체 조차 없이 전소돼 단서를 찾기 어렵게된 데다 화재 현장 주변에는 CC(폐쇄회로)-TV 조차 설치돼있지 않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 향일암 전각 배치도

경찰은 "신도들이 대웅전에서 기도를 마친 전날 밤 11시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촛불이나 난로 등 발화 요인도 없었다"라는 암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불에 탄 건물 3채가 각각 5~6m 떨어져 있는 독립건물이라는 점과 새해를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암자가 24시간 개방돼 있었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새벽 1시30분까지 돌산대교를 통해 향일암을 오간 700여대의 차량이 담긴 CC-TV 녹화 테이프를 확보, 방화 전과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향일암 대웅전 불상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특정 종교 신봉자 정모(여·43)씨의 행적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여수=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범종만 덩그러니 20일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전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에서 불이 나 사찰의 주요 목재 건축물 등이 잿더미로 변했다. 화마(火魔)가 할퀴고 간 종각엔 범종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게 탄 누각 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여수=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59년 원효대사가 창건…관광·참배객 연 60만 명

■ 향일암은 어떤 곳?

'해를 바라본다(向日)'는 뜻을 지닌 향일암(向日庵)은 서기 659년(백제 의자왕 19년) 원효대사가 원통암(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창건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의 말사(末寺)로, 국내 4대 관음기도도량 중 하나다.

1984년 2월 전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로 지정됐으며, 기암절벽의 동백나무와 수평선 일출 등을 보기 위해 연간 60만명의 관광객과 참배객이 찾고 있다. 해마다 새해 일출제에는 전국에서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조문화재 불 나면 끝장?

광주·전남에 325개 … 화재 예방 비상

전국적인 일출명소인 여수 향일암이 화재로 전소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소방안전 점검을 받는 목조문화재는 325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증심사와 춘설헌 등 22개의 문화재는 광주에 있으며, 전남지역에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 국보급 5개와 보물급 9개를 포함한 303개의 문화재가 있다.

양 시도는 해마다 2번씩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소방안전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기존의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소화기의 경우 건물 1곳에 1개꼴로 비치돼 있지만, 불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의 경우 제 구실을 기대하기 힘들고 소화전 설치도 전체의 70% 수준이다.

CC(폐쇄회로)TV 등 무인경비시스템은 동산 문화재가 있는 곳에만 설치돼 있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장치도 문화재 훼손 우려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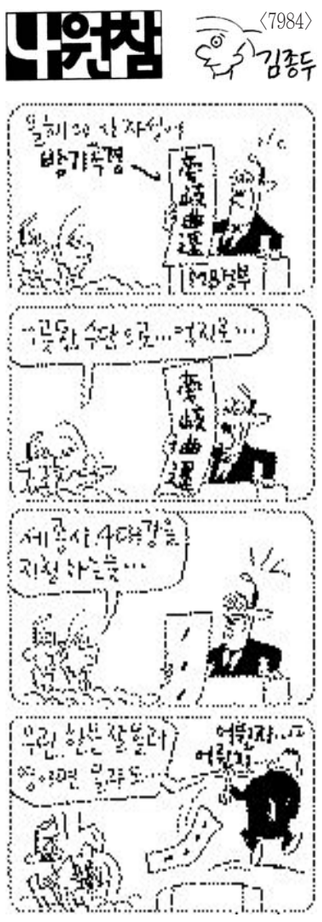
■ 문화재 화재·훼손 일지

1984. 4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 163호) 소실
2005. 4	낙산사 동종(보물 479호) 소실-강원도 산불
2006. 4	60대 남성, 창경궁 문정전 방화로 400여만원 재산피해
2006. 5	20대 남성,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로 누각 2층 소실
2008. 1	숭례문(국보 1호) 방화로 2층 누각 전소, 석조물 붕괴
2008. 4	40대 여성 향일암서 난동 대웅전 불상 등 훼손

화재 이후 복원작업을 위한 문화재 실측자료 확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여수 향일암의 경우 설계도면이 있어 복원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도 지정 목조문화재 53건 중 정밀실측 자료가 구비된 문화재는 단 6건에 불과하다. 특히 목조문화재 53건 중 15건은 간이 실측도면 조차 보유하지 못해 화재가 나면 복원도 하기 힘든 상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영암서 외국인 근로자 숨져

20일 오후 3시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의 한 공장에서 철근 운반작업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A씨가 철근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로 철근을 옮기던 중 일부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영암=이상휴기자 lsh@

법원 "김현희 양심선언 강요는 허위"

쌍나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김현희씨에게 'KAL기 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 조갑제닷컴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판결.

○…재판부는 20일 과거사조사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모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과거사위가 김씨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김씨의 편지 원문에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조씨는 기사 소개글을 통해 그러한 허위 내용을 게재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 /연합뉴스

새해 불과 10일 남았는데…상인들 '울상'

일출제 행사 개최 여부 오늘 확정 될 듯

새해를 10여 일 앞두고 해맞이 명소 여수시 향일암에 불이 나 대웅전 등 암자 주요 건물이 잿더미로 변함에 따라 해맞이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대목인 새해를 앞두고 준비를 해왔던 상인들은 해맞이 행사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향일암을 찾는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울상을 짓고 있다.

여수시는 기축년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부터 경인년 새해 첫날인 1일까지 향일암에서 일출제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주요 행사로는 해넘이, 개막행사, 제야의 종 타종식, 일출 행사 등으로 여수 엑스포 성공 기원 행사도 겸하고 있어 수십만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됐다.

향일암 주변 상인들은 이번 화재가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매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일암 인근에서 식당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윤덕순(여·44)씨는 "해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식당이 넘쳐나곤 했는데, 올해는 (향일암에) 불이나 사람이 뚝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막 축하공연 등 일출제 행사는 향일암 입구인 '거북등'에서 열리는 만큼 예정대로 해맞이 행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일출제 개최 여부는 21일 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택시 7,159대 '블랙박스' 탑재

사고원인 분석 가능

전남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에 각종 운행정보와 사고발생 당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탑재된다.

전남도는 택시와 관련된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분석과 분쟁해결,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도내에서 운행되는 택시에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블랙박스가 설치되는 차량은 총 7천159대로, 이 중 법인택시가 3천211대이며, 개인택시가 3천948대이다. 1대당 설치비용은 자부담 2만8천 원을 포함해 약 14만 원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영상기록장치는 택시에 영상카메라와 GPS 모듈 등을 설치해 과속을 비롯한 신호·차선 위반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택시에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사고발생 때 목격자가 없어도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